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진

무주군, 6개월 이상 빈집 새롭게 단장·저소득층·귀농·귀촌인에게 제공

무주군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2021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6개월 이상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저소득층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무주 정주권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사업량 7동 중 현재 6동은 완료했으며, 연초 사업신청자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1동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빈집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및 수선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이며 임차인에게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 하는 방식이다. 빈집 소유자에게는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입주자에게는 주거비용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은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의무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로 다양한 계

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민원봉사과 건축팀 최은정 주무관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주거취약계층 또는 귀농·귀촌인 등 인구 유입과 정주권 환경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입대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3-320-2486)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

150억원 투입 지역정체성 확립·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무주군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로써 설천면은 '청정자연, 관광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배후도시' 설천, '눈꽃내를 주제로 지역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눈꽃내 거점조성(삼도봉장터 복합화, 태권 스테이션), 눈꽃내 스마트 주거

재생(노후주택 정비 40호, 생활환경개선사업), 눈꽃내 맞춤형 가로정비(태권로드 조성, 남대천 눈꽃길 정비사업), 눈꽃내 공동체 활성화(지역활성화 유지 프로그램) 사업 등에 150억원(국비 80억 원, 도비 13억 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약 15만㎡의 구역에 무주군 최대 관광 지역으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삼도의 삼권이 만나는 삼도봉 장터를 주민을 위한 메인

중심거점으로 계획하고, 태권배후도시로서 방문객 유입 거점시설로 태권 스테이션을 계획했다.

이밖에 설천면 원도심에 인구성장의 정체, 지방경제의 침체 및 생활인프라 열악 등 도시재생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한 부분에 맞춤형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각종 연계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설천면에 15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집중 투입되면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쇠퇴한 상권 활력을 위한 상권생태계 개선 및 지역맞춤형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무주군 설천면 도시재생 종합계획도.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도출해 낸 성과다.

황인홍 군수는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태권도의 배후도시인 설천면의 입지 강화와 중심 상점(삼도봉장터) 거점 조성 및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태권스테이션 등이 조성될 것"이라며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상권 활력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무인민원발급기 7곳 운영

무주군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 및 설치 위치 등을 안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6개 읍면 7곳에 설치가 돼 있으며 군청(민원실)과 보건의료원(현관에서는 24시

간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구천동농협 구천동지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제증명 종류는 주민등록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 73종이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제증명은 지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제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안내하는 절차 이행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장수군, 구제역 전염병 방지 위해 29일까지 4주간 진행

장수군은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해 구제역 유입방지 및 차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제1종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빠른 전염과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

군에서는 소·돼지·염소·사슴에 대해 연중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9월 사슴과 염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소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은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읍·면별 공수의 4배반을 편성해 농가 입회하에 접종이 이뤄지며, 50두 이상 집업농가에 대해서는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형성율이 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재접종 명령, 4주 내 재검사 조치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문철 축산과장은 "구제역 전염병 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농장 인퐁, 외부인, 출입 차량 등 철저한 소독을 해줄 것을 사육농가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황인홍 군수 "10월 속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 보자"

무주군, 10월 월례초회 가져

무주군은 10월을 맞아 지난 1일 월례초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청내 방송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감염요인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가을관광에 대비해 완벽한 방역관리태세를 갖출 것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할 것과 △추진 중인 사업의 동절기 이전 마무리, 그리고 △이월 사업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업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국경

일 태극기 게양 분위기 조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 홍보 및 전 군민 지급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덧붙여 황인홍 군수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질서유지와 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사명이고 보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10월 속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 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주군여성자원봉사회(회장 최경화 단체부문)와 한국여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 최미선 부회장(45세, 안성면 개인부문)이 양성평등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작상면 성도·중유·상유 통합민방위대 신윤석 대장(60세)이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미래지향적 교육모델 구축 위한 진안군 교육정책 포럼

2021 진안군 교육정책 포럼이 지난 1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열렸다.

진안군이 주최한 포럼에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과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했으며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팹방TV를 통해 생중계 됐다.

전춘성 군수의 공약사업인 '자율과 전문성이 함께하는 미래교육 구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및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교육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라북도 교육청 장미소 교사의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 △마령고등학교 이상훈 교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장승초등학교 학부모이자 꿈터사람들 정숙영 대표의 '내아이, 우리아이, 세상의 아이를 우리는 진안에서 키운다', △교육복지네트워크 박수진 팀장의 '교육복지네트워크의 필요성' 등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은 전주교육대학교 이경한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 우수마을 선정

진안군이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빌리지사업'과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우수마을을 선정했다.

지난 1일 마을만들기 1단계 사업인 그린빌리지사업에는 총 12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진안읍 사인동마을이 최우수마을에 선정됐다.

우수마을에는 진안을 화천3동, 진안읍 연구2동, 동향면 호천, 마령면 석교, 부귀면 원두남이 선정되어 내년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의 참여 자격을 얻었다.

또한 백운면 원동정마을이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6개 마을 중 최우수 마을에 선정되었고, 우수마을로 진안읍 석곡, 주천면 상양정이 선정, 내년도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2022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 선정

장수군이 2022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발돼 예산 7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주 참여도와 산림경영여건, 지역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전북 장수, 강원도 횡성, 충청북도 음성 총 3곳이 선정됐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산림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선순환 산림경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임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장계면 대곡리·오동리와 계남면 가곡리·공암리·장안리 일원 사유림 일원에 10년간 75억원(국비 60%)을 투입해 장수군만의 특색 있는 산림경영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번암면 지지리에서 추진중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과 연계해 수확기에 도달한 산림에서 목재 수확 후 낙엽송, 자작나무 등의 경제수로 수종갱신하고, 특화재배단지 모델링,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